

# 공화국의 품에서 참된 삶을 빛내인 시인

...  
 메마른 가시밭을 울고 울며  
 네 왔느냐  
 지친 길 에돌면서 외로웠던  
 시골마을  
 불행에 감겨 찢어진 몸을  
 시름놓고 말진 곳은  
 아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 
 ...  
 공화국인들끼리 누구나  
 알고 즐겨 부르는 이 감동깊은  
 노래가사는 곡절많은 인생길  
 을 걸어 사랑의 바다에 안

긴 작가 오영재선생이 창작  
 한것이다.  
 하다면 그는 어떤 인생길  
 을 걸어왔기에 공화국의 품  
 을 인정의 바다, 사랑의 바  
 다라고 목에 꿰어 걸었는가.  
 주체문화발전이 빛나는 공화  
 국을 한 영웅시인인 오영재선  
 생의 값높은 인생은 공화국이  
 아말로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  
 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 진정한  
 요람, 참다운 조국이라는 진리  
 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.

러운 세대들에 아낌없이 나  
 누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 
 우물에 빠진 드레박을 건져  
 주는 인민군인들의 모습에  
 서 백성을 위하는 참된 군  
 대를 보았다.  
 그 모든것은 열다섯살의  
 어린 그가 의용군에 단원하  
 게 된 직접적동기이기도 하  
 였다.  
 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## 인생의 갈림길에서



오영재 선생

작가 오영재선생처럼 인생  
 길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  
 며 그 선택이 무엇이든 기조  
 해야 하는가를 실생활체험을  
 통해 심장으로 절감한 사람  
 도 드물것이다.  
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 
 1950년 마가울에 있는 일이  
 었다.

김일성장군님이시다.  
 장군님께서 계시는한 우리는  
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.  
 동무들도 장군님의 전사들이  
 아닌가?  
 인민군관관의 확신에 찬  
 말은 나약해졌던 오영재선생  
 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  
 었다.  
 (나는 인민군전사다. 가  
 자,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!)  
 《군관동지, 전 북으로 가  
 겠습니다.》  
 이렇게 되어 오영재선생은  
 북행길이나 고향길이나 하는  
 인생의 두갈래 갈림길에서  
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인  
 민군대오의 신념의 보무에  
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게 되  
 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## 인정의 바다, 사랑의 바다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## 총련 부흥을 위한 길에서

총련일군들과 제일동  
 포들이 총련의 미래를  
 지키기 위한 투쟁에  
 적극 떨쳐나서고있다.  
 동포사회 그 어디서나  
 우리 학교 사랑하는 운  
 동, 모교를 사랑하는 운  
 동이 힘있게 벌어져 민  
 주교육열기가 날로 고조  
 되고있다.  
 ▶사망의 교육원조비  
 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 
 지난 4월중순 어느날  
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  
 고급학교 구내에서는 류  
 다는 환희가 감돌고있었다.  
 바로 이날이 학교창립  
 70돐이 되는 날이었기  
 때문이다. 창립일을 의  
 의있게 기념하고자 하  
 면서 교사앞에 있는 화단  
 에 자기들의 애국의 마음  
 이 어린 꽃포기들을  
 정성다해 심던 학생들은  
 감격적인 소리에 접하게  
 되었다.  
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
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의  
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 
 보내주시었다는 소식이었다.  
 교정에는 감격의 파도가  
 물결쳤다. 교직원, 학생들  
 은 한결같이 교육원조비와 장  
 학금이야말로 거치는 지역명예  
 민족의 혈통, 애국의 넋이 꽃이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

민족교육발전에 힘을 쏟고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원래 그는 어릴 때 물속에  
 도 진창에도 덩뎡뎡 뛰여  
 들군 하여 별명이 《덱석》이  
 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의용군  
 입대를 단원한 그 의기는 결  
 코 10대의 소년들이 흔히 덱  
 석 빠지곤 하는 감상적인 용  
 감성이 아니었다.



김강산가극단 공연 (2023년 2월)